

인환실무론

제6장 국제통화제도



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

유 하상 교수



❖ 제6장 국제통화제도

1. 국제금본위제도(Gold standard system)
2. IMF 체제의 성립과 변혁
3. 유럽경제통화통합(EMU)
4. SDR(특별인출권)

(1) 국제통화(international currency)

① 국제통화의 개념

- 국제간 상품, 서비스 및 자본이동에 따르는 대차관계를 결제하기 위한 자본 수단으로서 범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는 통화를 말함
- 예: 미달러화, 일본엔화, 유로화, 특별인출권(SDR)

② 국제통화(international currency)의 기본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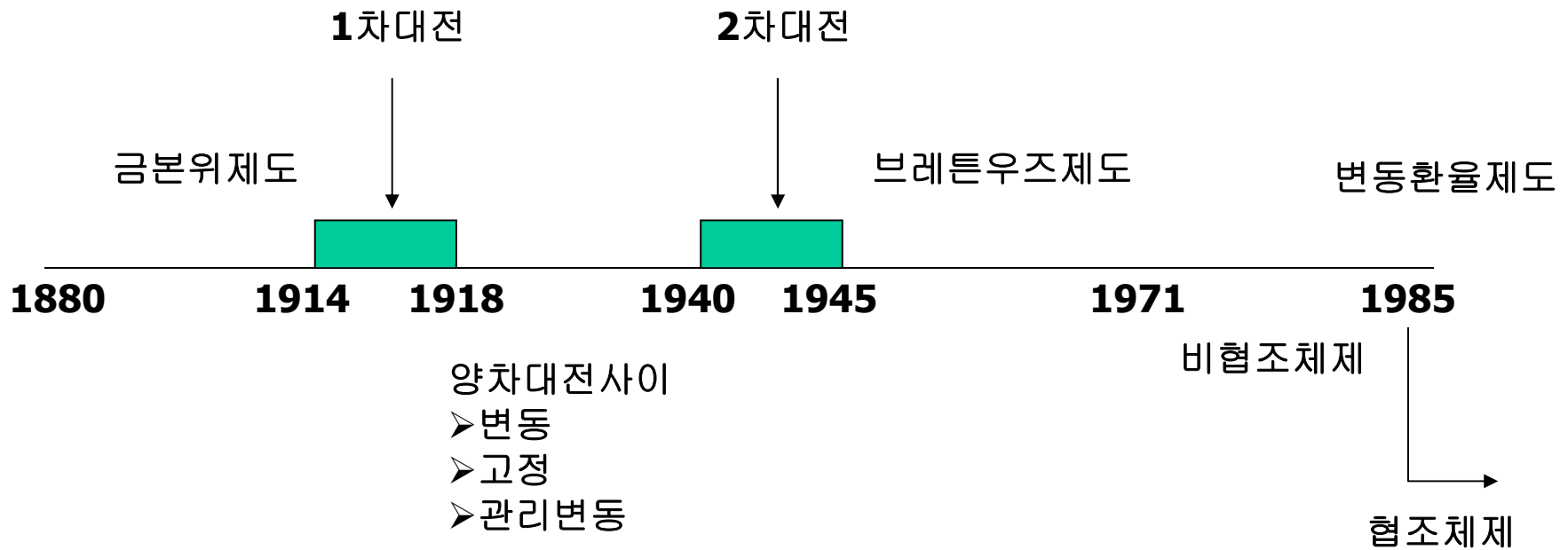
- 당해 통화 발행국의 경제적 규모가 커야 함
- 당해 통화의 운용, 다른 통화로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발달한 금융시장이 존재해야 함
- 당해 통화의 가치에 대한 국제적 신인이 있어야 함

(2) 국제통화제도(International Monetary System)

- 국제결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에 합의된 일련의 규칙, 관습, 수단, 도구 및 조직을 말하며, 바람직한 국제통화제도는 국제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극대화시켜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이다.
- 국제통화제도는 대외결제를 위한 지급수단인 국제유동성(International Liquidity)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,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1. 국제금본위제도

- 국제통화제도는 세계경제의 변화, 선후진국가간이 이해 상충, 각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천과정을 거쳐왔음



1. 국제금본위제도

(1) 금본위 제도의 의미

- 금본위제도란 화폐 한 단위의 가치를 일정량의 금의 가치와 결부시키는 제도를 말함, 즉 금의 일정량을 기준으로 자국화폐의 가치(환율)을 결정하여 금을 국제적 지급수단으로 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에서 교환과 지급의 매개수단으로 삼는 제도를 말함
- 금본위제도는 1816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,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금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금태환이 불가능하면서 유지할 수 없게 됨



1. 국제금본위제도

1) 금본위제도의 유형

- 금본위제도는 그 구체적인 법제와 운용의 실제에 있어 몇 가지로 나누어짐
 - ① 금환본위제도(gold coin standard) : 금환이 주조되어 그것으로 태환이 보증되는 제도
 - ② 금괴본위제도(gold bullion standard) : 금환을 대신하여 금괴로의 태환에 용하는 제도
 - ③ 금환본위제도(gold exchange standard) : 금본위국에서 발행된 금환 또는 그로부터 발행된 금환을 일정한 시세로 매매하는 수단으로 국제화폐의 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사이에 등가관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함
 - ④ 금핵본위제도(gold kernwahrung) : 금이 핵심으로서만 존재하고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금괴본위제도와 금환본위제도를 통합하여 일컫는 칭호

금환본위제도(Gold Exchange Standard, 1925~1931)

- 통화와 금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금과의 태환이 보장되는 통화와 그 나라의 통화가 연결되는 제도



파운드 프랑 마르크

- 유럽의 통화들이 달러를 매개로 하여 금과 연결이 되는 금환본위 제도를 실시

1. 국제금본위제도

2) 금본위제도의 붕괴

- ① 금환본위제도는 금본위제도에 비해 국제수지 자동조정기능이 미약하고, 국제유동성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
- ② 이러한 문제점은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전면적 부각되었음, 특히 영국의 국제수지 악화로 각국이 파운드환의 금태환을 요구함에 따라 1931년 영국이 파운드환의 금태환을 정지한 데 이어 프랑스, 미국까지도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금환본위제도는 전면적으로 붕괴됨
- ③ 이로써 금본위제도는 불환지폐제도로 이행하게 됨

2. IMF 체제의 성립과 변혁

(1) 브레튼우즈 체제(1946-1971년)

①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과정
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통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연합국 44개국 대표가 미국의 브레튼우드(Bretton Woods)에 모여 국제통화기금(IMF)와 세계개발은행(IBRD)을 설립할 것을 결정함
-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적 목표는 국제협력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계경제의 확대와 균형의 유지를 실현하는 데 있음
- 이러한 요청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기에 각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수입 제한조치 그리고 폐쇄적인 블록경제권의 산발적 형성이 제2차대전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
- 브레튼우즈 체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IMF와 IBRD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GATT가 성립되었으며, IBRD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국제금융공사와 국제개발회의가 설립되었다.

2. IMF 체제의 성립과 변혁

② 브레튼우즈 체제의 운용

- 이 체제는 각국의 통화가 미국 달러를 통해 금과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는 금환본위제(gold-exchange standard system)를 채택함
- 이에 따라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(key currency)의 역할을 하게됨
- 즉, 미국의 달러화만이 금과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하고, 다른 통화는 달러화와의 평가를 통해 금에 간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제도, 이런 의미에서 금·달러본위제라고도 함

브레튼 우즈 체제(1946~1971)

- 1944년7월,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의 대표들
→ 2차 대전 후 국제 금융 질서회복에 대해 논의



“국제 금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**돈의 가치를 고정** 시켜야 함”

-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달러의 가치를 금과 연결시킴



“달러를 매개로 하여 통화와 금이 연결되는 **금환본위제도** 실시”

2. IMF 체제의 성립과 변혁

②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

-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국제유동성은 금 생산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에 의해 공급되었으며, 부분적으로는 IMF의 신용공여 제도로 보완되었다.
- 그러나 금 생산은 한정되어 있으며, IMF의 신용공여 역시 한계가 있어 국제유동성은 주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공급되는 달러화에 의존하게 되었다.
- 이에 따라 미국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됨에 따라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(닉슨독트린)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말았다.
-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고정환율제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, 자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고,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.(EC는 공동변환환율제도, Snake System을 도입함)

금태환 정지 선언(1971년8월15일)

▪ 1971년 미국의 월남전쟁 => 재정 적자, 무역 적자



“금태환 정지 선언을 함”

고정환율제도의 붕괴

변동환율제도 실시

(2) 스미소니언 협정(Smithonian Agreement)

① 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

-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1971년 선진 1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 각국 통화의 평가를 재조정하고 종래의 금 또는 미국달러 대신 신축성있는 기준을 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미달러화의 평가를 절하하고 환율변동폭을 종래 평가의 상하 각 1%에서 기준율의 상하 2.25%로 확대하는 것을 합의하였는데 이를 스미소니언 체계라고 함
-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.02달러로 미달러의 평가절하와 동시에 마르크 환율 연합의 평가절상

② 스미소니언 체제의 붕괴

- 스미소니언 체제도 금태환성이 결여된 미달러화를 계속 평가의 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
- 그 결과 각국 통화의 평가조정으로 잠시 주춤하였던 투기적 자본이동이 재개되었으며, 결국 영국은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972년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고, 이에 이어 미국 달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, 일본 및 유럽공동체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등이 일어나면서 스미소니언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.

2. IMF 체제의 성립과 변혁

(3) 킹스턴체제(Kingston System)

① 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

- 스미소니언 협정의 붕괴에 따라 1976년 자메이카(Jamaica) 회의에서 각국이 자유롭게 변동환율제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킹스턴 체계가 출범하게 되었다.
- IMF는 금과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특별인출권(SDR)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금의 역할 대신하도록 하고, SDR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.
- 그러나 특정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SDR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으며, 주요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SDR본위의 국제통화질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.
- 또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경제의 불황,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달러가치의 인하조치, 투기적 국제자본의 대두 등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.

변동환율제도(1973년이후)

- 킹스턴 협약

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IMF 각국 대표들이 모여 변동환율제도를 승인함



변동환율제도가
확립이 됨

3. 유럽의 경제통합통합(EMU)

(1) EMU와 EURO

-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등 달러화의 불안 지속으로 인한 유럽의 환시장의 동요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존도가 높은 역내국간 통합통합의 필요성이 부각됨
- 이에 따라 1979년 유럽통화제도(EMS, European Monetary System)을 발족시키는 등 단일경제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함
- EMS의 출범과 동시에 단일 통화인 유로화(EURO)를 도입하여 2012년 현재 17개국에서 유통되고 있다.



4. SDR(특별인출권)

(1) SDR의 개념

- SDR(special drawing rights)이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의미함.
- 금이나 미달러화의 국제유동성 부족과 기축통화의 신인도 저하에 따른 국제통화 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IMF가 창출한 가상화폐로서 제3의 통화로 간주되고 있다.
- SDR은 IMF가맹국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되며, 특정국이 국제수지 적자상태에 빠져있을 경우, SDR을 발행하여 외국의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에 인도함으로써 필요한 외환을 입수, 그 외환을 국제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.
- 국제수지 흑자국은 SDR의 인수가 의무화되어 있다.
- SDR의 가치는 당초 금에 의해 표시되어 달러와 같은 0.88671g의 순금과 등가로 정해졌으나, 달러의 평가절하로 1973년에는 1SDR=1.2635달러가 되었다.
- 그 후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됨에 따라 1974년 이후부터 무역비중이 큰 16개국의 통화시세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복수통화팩(peg)방식 표준통화바스켓방식에 의해 매일 계산하여 표시하게 되었다.
- 1980년부터는 표준 바스켓의 통화를 16개 국에서 5개국(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) 통화로 축소하여 SDR표시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다.

3. 유럽의 경제통합통합(EMU)

15

(2) 유러화의 가치

3. 유럽의 경제통합통합(EMU)

(3) 유러달러 및 유러 통화의 개념

- 유러달러(Euro dollar)란 미국 이외의 은행, 주로 유럽의 은행에 예입되어 있는 달러 자금을 의미함
- 일반 예금과는 달리 이 달러는 무국적이며 어느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예입 및 대부가 모두 국경을 넘어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. 이 때문에 유러달러는 유럽 각지의 금리차나 평가조정에 의한 환차익을 따라 이동하는 핫머니(hot money)의 성격을 갖고 있다.
- 유러달러 거래의 중심지는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도시이지만, 현재는 홍콩, 싱가포르에 예치되어 있는 미달러 표시예금도 포함되고 있다.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유러달러라는 표현보다는 유러 통화(Euro-currency)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, 집시커런시(Gypsy currency)라고도 한다.
- 유러통합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.
- 첫째, 미 달러화로 지급해야 할 단기부채라는 점
- 둘째,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은행의 채무라는 점이다.
- 유러 달러시장이란 유러 달러자금의 소유자로부터 단기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의 최종수요자에게 대출하는 중개시장 또는 유러 달러 자금을 차입, 대출하기 위하여 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의 두 가지 시장을 포괄하는 의미이지만 주로 후자의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.

감사합니다

